

“빛난 환희 속에”



(왼쪽이 김동열씨(왼쪽)와 김형제씨(오른쪽))

김산 축복사

(성도의 빛 기자와의 대담)

기자가 국립 의료원 812호실을 찾았을 때 김산 형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병실로 안내하는 분은 김산 형제의 둘째 아들 김동열씨였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의 빛 기자라고 이야기하자 김동열씨는 꽤히 슬낙하면서 병상의 부침을 깨었다. 김산 형제는 바로 일어나 앉으면서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기자: “김형제님 몸은 좀 어떠신지요?”

김형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회원들이 많이 찾아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자: “참, 한 집안에서 세분이나 국가 유공자로 표창을 받으셨다는데 그것에 관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제: “아! 그거,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나라에서 표창을 해주니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원호칭 식구가 된 거지요. 나는 82년도에 받았고 나의 부친과 형님은 작년에 독립 유공자에게 주는 표창을 받았지요. 나의 부친(김 사범 선생 - 일제 시대 배영 학교 설립자)은 온 생애를 교육에 헌신했고 내가 평양 감옥에서 고당 조만식 선생과 함께 있을 때 나의 형님(김 종민 씨)은 3.1 운동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일경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나는 1918년 20살때 길 선주 목사(33인 중 기독교 대표)로부터 안수받고 교회와 독립 운동을 위하여 힘쓰기 시작하여 이듬해 3.1운동 때 체포되어 만년동안 옥살이를 했지요. 1920년 YMCA에서 월남 이상재 선생을 모시고 소년부 일을 맡고 활동하다가 다시 일년동안

복역하고 1928년 봄까지 중국에서 활약하다가 귀국하여 경남 마산에 중앙 독립 교회를 세우고 야간 노동 학교를 설립한 후 평남 용강에 놓지 3만여 평을 확보하여 복을 전도와 민중 계몽에 힘쓰다가 체포되어 1년간 옥살이를 했읍니다.”

기자: “김형제님! 옥살이도 여러번 하셨군요. 그러면 해방 후 정부 수립 후의 활동은 어떠하셨는지요?”

김형제: “해방 후 한국 민주당에서 초대 청년부장, 한국 노동 창립 위원장 등으로 일하면서 수백 개의 청년 단체를 하나로 묶어 화합의 길로 이끄는 데 힘을 썼고 전국 200여 곳을 순회하며 건국 이념과 반공 강연을 했지요. 그리고 제5대 국회 의원으로 있을 때는 많은 유혹을 이겨냈다고 여겨집니다.”

기자: “김형제님의 과거 활약상을 들으니 김형제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알겠읍니다. 끝으로 김형제님께서 말일성도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신 동기와 간증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제: “1975년 봄이라고 기억되는데 힐 장모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물문쟁을 보여준 것이 동기가 되었다면 동기로 할 수 있겠어요.

그 이전에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소위 물문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하여 개종할 뜻을 본처들에게 알렸을 때 2년 동안 많은 압력을 받았었지요.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야단들이었습니다.

온갖 박해가 저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힐 장모와 두달 동안 공부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읍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물문쟁 이야기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어린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참된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는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 교회가 아마도 참된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개종하게 되었읍니다. 7월 15일, 빛난 환희 속에 침례를 받고 개종하였읍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많이 울었읍니다. 힐 장모도 함께 울었지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힐 장모는 경건한 선교사였읍니다.

저는 물문쟁을 읽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없이 믿고 있었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변과 인생을 축복하셨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김형제님 감사합니다.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청주 스테이크 대회



스테이크 대회에서의 역원 지지 모습

1984년도 전반기 청주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3월 3, 4일 양일간에 걸쳐 청주 상당와드에서 황 충열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3일(토) 오후 5시부터 신권회와 6시 10분부터 7시 30분까지 토요일 저녁 모임이 진행되었고 4일(일) 총회는 오전 10시 부터 12시까지 계속되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민 동근 부장, 귀환 선교사인 고 선주 자매 그리고 황 충열 부장이 차례로 말씀하였고, 일요일 총회에서는 민 동근 부장, 귀환 선교사인 서 창식 장로, 남 경현 부장, 켄슨 서울 서 선교부장 부부, 황 로젠 자매, 끝으로 황 충열 스테이크 부장이 말씀하였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에서 4명의 대제사와 15명의 장로가 성임되었고, 그동안 청

주 스테이크 집행 서기로 수고한 남 경현 형제가 부름을 받았고, 스테이크 집행 서기에 조 주연 형제, 스테이크 서기에 김 봉수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한편 고 등평의원으로서는 장 병순 형제, 송 윤현 형제, 백 두현 형제, 이 종구 형제, 이 원준 형제 그리고 김 용성 형제가 각각 성별되었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황 충열 스테이크 부장은 "성서가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교과서"라고 강조하였으며 신전에서 의식을 받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일요일 일반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상당와드 예배실과 분반 교실을 꼭 배우고 눈 덮인 운동장에까지 의자를 놓고 대회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

광주 스테이크 대회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4월 14일과 15일 이틀동안 스테이크 센터에서 총관리 역원인 로이든 지 데릭 장로의 감리로 84년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부산 광주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와 박 병규, 부산 선교부장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데릭 장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였으며 모든 회원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신전 추천서를 받게 되기를 당부하였다. 예배실과 활동실 그리고 분반 교실까지 꼭 메운 성도들은 데릭 장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새로운 다짐을 하였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3명의 대제사와 10명의 장로가 새로 탄생되었다. *

“손님 접대 시범 모임” (여수 와드)

3월 24일 오후 5시부터 여수 와드에서는 와드 대회 전야제로 손님 접대 시범 모임을 가졌다.

청남, 청녀들이 과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접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이 모임에서 대상은 이은미 자매가 차지하였다. *

신전 준비 세미나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전 추천서를 소지한 3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신전 준비 세미나를 가졌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한 이번 세미나의 강의는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회원과 감독이 맡아 진행하여 더욱 뜻있는 모임이 되었다.

마지막 날 간중 모임에서는 모두들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앞으로 서울 신전에서 의식을 받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다짐하였다. *

시흥 와드 예배당 완공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서 스테이크 소속의 시흥 와드는 새로운 건물이 완공되어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었다. 6개월에 걸쳐 공사가 진행된 새로운 건물은 이 상태 감독을 비롯하여 회원들의 많은 노력 봉사와 건축 헌금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기념 행사로 초등학교의 꼭두각시 춤이 공연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으며 특히 정광재 형제 부부는 공로상을 받았다. *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꼭두각시 춤 공연 모습

